

◆머느리권씨 열전 19-1

신수근의 부인 영가부부인 권씨 (소한당 권람의 6녀, 추밀공파 19世)

최고의 금수저에서 사형수로 일가족 몰살, 그리고 필요에 의해 정몽주급으로 부활(?)

역사의 소용돌이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는 현실 법 논리에 의한 이야기가 되지는 현대사에 '역사적 실권'에 의해 갈 곳 없는 전직 모 대통령의 이야기가 '서울의 봄'과 함께 성큼 다가오는 시점이다. 용춘에 지리복래!

조선조 처음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 이후, 수양대군의 쿠데타에서 왕도는 처절히 무너지고 소인배들의 나라가 되고 결국 민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지탱하다가 마침내는 주자학 원론을 내세운 노론 모리배들에 의해 나라를 망치고야 말고 그 무리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신수근(愼守勤, 1450-1506)이라는 인물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의 첫부인이 당대의 거린아 권람(權攀, 1416-1465)의 6녀라는 것이다. 신수근의 부인이나 후사 없이 일찍 죽으니 사실상 신수근과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양주시 신수근 무덤 뒤에 좌측에 권씨, 우측에 한씨(명마절도사 한충인의 여식)가 있다. 권씨의 묘비는 후에 다시 세웠지만, 엄연히 '영가부부인 권씨'이다. 부부인(府夫人, 정1품)은 왕의 장모(왕비의 모친)를 일컫는 것이니 외명부 최고의 직책이다. 새로 만든 비석에는 정경 부인(정1품)이라하니 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는 확인해 볼 일이다.

여기서 신수근의 배경과 인생유전을 살펴보면, 권씨의 남편으로 그의 생을 음미해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는 공교롭게도 장인 권람의 호인 소한당(所閑堂)과 발음이 같은 소한당(所閑堂)을 쓰고 있는데 그 연유는 알 길이 없다. 장인의 위세에 의존한 바도 있다고 본다.



단경왕후 가계도와 신수근

순간의 판단이 가져온 천당과 지옥

신수근의 묘비에도 당당히 영의정,의창부원군(益昌府院君, 왕의 장인)이라 되어있다.

신수근의 어머니는 수양대군의 난에서 이를 지지한 임영대군(세종4자)의 4째 딸(中牟縣主)이다. 임영대군은 세종이 왕이 되고 낳은 첫아들이다.

아버지 신승선은 영의정 출신, 사위 연산군이 왕일 때 했다. 결국 연산군 주변의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도저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직하였다. 한치형(연산군 할머니 인수대비, 사촌오빠)이 후임 영의정이나 공교롭게도 그도 1502년에 죽고 2년후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 당한다. 또한 신승선이 임영대군의 사위가 된 것은 미남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신수근은 어머니가 왕족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부인은 당대 권신 권람, 또 절도사 한충인의 딸, 자신도 현직 좌의정에다가 왕(연산군)의 오빠이고 또 진성대군(연산군 동생, 중종)의 장인이었다. 즉 당시 왕족들의 결혼 행태는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낮은 모습이다. 연산군과 중종은 이복형제간이니, 고모가 형님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 한명회는 예종과 성종 두 형제 왕에게 딸 하나씩을 준 경우도 있다.

여기서 신수근도 이미 연산군이 문제아이고 종말이 안좋은 줄은 알았다. 연산군은 장인(신승선)과 중조부(한치형)를 영의정으로 거느린 꼴이 된다.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다.

반정군의 핵심 박원종(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처남)이 신수근에게 반정 가담을 요구 받자 '연산군(매부)은 안 좋지만, 그 아들(조카, 세자)이 쓸만 하니 기다린다! 연산군이 피폭을 쟀다니... 곧 바뀌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도 함류는 거부했다. 이로써 결국 일가족 몰살의 참극을 맞는다. 누이나? 딸이나? 둘다 놓치는 우(愚?)를 범했다고나 할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렇다해도 그의 딸, 진성대군(중종)의 부인 신씨의 운명은 기구하다. 혁명군의 절대적 권력자 박원종은 신씨가 왕비가 되지 못하게 막고 내치도록한다. 실제 혁명군이 중종 진성대군의 집을 에워싸자 진성대군은 형 연산군이 보낸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로 알고 자결을 하려 한다. 이때 총명 한 신씨가 '말 궁둥이가 보이면 살고 머리가 보이면 죽습니다'라고 하여서 죽기 전 밖을 보니 과연 진성대군을 보위하려는 혁명군의 군사였다.

이후 신수근이 참수되니 그의 딸 신씨(端敬王后 愼氏, 1487-1558)가 왕비가 되면 혁명군도 나중에 어찌 될 지 모르니 7일 만에 폐위시킨다. 실제 법적으로 왕비가 된 적이 없고 왕 즉위식에도 없었으니 왕비라고 할 것도 없다. 그녀는 그냥 평민으로 살았다. 명종 때 문정왕후의 특세 시기를 살았으니 그녀도 신산한 삶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남편 중종이 경빈 박씨, 윤비(장경왕후, 문정왕후), 장빈 안씨 등의 후사가 겪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그녀는 물러나 있다. 그것이 그나마 장수(71세)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20세 왕비가 되었다가 50년을 더 살았다. 그녀는 후사가 없어서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잊혀졌을 것이다.

여기서 혁명주동자 박원종이 절대권력자에서 4년 만에 죽으니 또 다른 신하들의 시대가 열린다.

300년 만의 복권

그럼 과연 신수근은 정몽주급 충신인가? 200년



신수근의 묘(앞쪽). 뒷편 좌측 영가부부인 권씨와 우측 청원부부인 한씨의 묘.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뒤 숙종대에 이른바 조선편 역사 바로잡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된다. 숙종의 부왕 현종도 그의 후사가 없어 피폐함에 대해 관청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숙종 시기에 재분 되나 사당을 짓고 제사지내는 선에서 끝낸다. 숙종은 '별덕 카리스마'로 통치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자신이 장희빈을 처형한 전력으로 후에 그녀의 복권을 두려워 한 것도 시대의 모순이다.

이후 영조 대에 와서 단경왕후, 온릉이라는 작위와 능호를 영조가 직접 지시하고 그 손자 정조는 단경왕후 결혼 300주년, 장인 신수근의 복권을 명하고 잔을 올린다.

지금 장흥의 온릉은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러한 신수근의 복권은 결국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이니 차후 왕에게 반란은 어쨌든 잘못이라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방원이 똑같은 개혁세력인 정척 정몽주를 죽이고 또 충신으로 떠 만드는 권력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다만 신수근이 너무나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말'보다 '누이'를 위해 결정을 했다기 보다는 '명분(불사이군)'과 또 곧 드러날 후대를 생각한 면도 있고, 딸이 20세 이긴 하지만 후사가 없음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 또 반정의 결다리로서 이래 저래 권력의 주류가 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했을 것이다. 반정 당시 혁명군에게 적극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각과 자료로 재평가해야 함은 마땅하다. 지금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권람의 딸, 영가부부인 권씨에 대한 것과 거창 신씨에 대해 알아보자!

묘비문은 정경부인으로 되어 있으니 이 또한 알아봐야할 문제이다. 신수근의 계처 한씨(淸原府夫人 韓銀光, 1447 ~ ?)는 경정공주(태종의 딸)의 의증손녀이다. 신수근의 외 6세손이 비운의 소현세자비 강빈이다. 역사는 이토록 모질게만 돌아가는가?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58차 정기총회 개최



전주·완주종친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주·완주종친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하례식 및 제58차정기총회를 권이수 회장과 임원 및 운영이사 그리고 원로이신 권오선, 권기성 권자하 고문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신년 하례식에서 종친회 제일 어르신 권봉철 부회장께서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의 방향에 대해 말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덕담을 해주었다.

이어서 권영춘 총무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 권이수 회장 인사말,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3년결산보고 및 2024년 예산안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종친회 발전과 후손들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기탁 해 오고 계시는 권기성, 권오선 고문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권명수 수석 부회장도 50만을 기탁하였다.

권이수 종친회 회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완주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신 고문님과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임하는 동안 몰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종친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일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완주종친회가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가 더욱 증진되는 발전된 전주,완주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감사(권오선,권혁신)의 2023년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재무이사(권오춘)의 진행으로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들의 개 의 및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024년에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과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 권영기 운영위원이 점심을 접대하였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권기성 고문의 건배 제의로 담소와 함께 중식을 들었다.

권영춘 전주·완주종친회 총무이사

행주산성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권율 장군 처럼"



행주대첩비와 대첩비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산성에서 2024년 시민과 함께 하는 신년 인사회를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주최 측은 "행주대첩은 한산대첩과 진주대첩과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이다. 행주대첩은 3만 일본군의 10분의 1 수준인 2300여명으로 권율장군의 기지로 거둔 완벽한 승리였고, 최악의 상황에서 승전보를 울린 조선 육군의 쾌거였다. 권율장군과 병사,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양 수복의 신호탄

이자 국난극복의 단초를 마련한 전투였다"고 소개했다. 일행은 행주대첩비를 참배했다.

한국 역사상 국무총리와 전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주요 정치인이 행주산성에서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새해 벽두에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처음인 듯 하다.

앞으로 더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행주산성을 방문해 권율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행완 편집국장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38世 별장공파)은 지난 12월 22일 사)한국신문방송협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권중석 의원은 경북 영양에서 고 재용옹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경산라이온스 회장, 북부동 농촌 지도자회 회장, 북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장, 경산시 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했으며, 경산시 의정활동에서는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시행으로 경산시의정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적으로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했다.

권중석 의원은 "이번에 받은 상은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려는 책력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욱 취재부장

조강지처에 대한 회한의 서한



권혁원 대총회 부회장

본인은 부친 권오봉(權五鳳)과 모친 윤희용(尹姬容)의 분신으로 칠남매 중 장자로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반려자인 윤임순(尹王順)은 사남매 중 둘째로 부친 윤주환(尹柱環)과 모친 임평원(任平媛)의 딸로 보령군 미산면 남십리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반려의 인연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님, 윤희수尹熹秀)께서 죽으신 파평윤씨 가문의 남자를 종매하여 배필이 되었고, 임오생(壬午生) 동갑으로 방년 21세, 스물한 살 철없는 유년에 묘령의 윤임순 규수와 1962년(임오) 음력 9월 10일 혼인식을 성대하게 행하였다. 양가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 본가, 외가, 처가 동 삼씨족은 사대부 가문의 유학자 집안으로 학덕과 지식이 타인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평생 반상반하(班上班下)에 변함없는 후대로 생활하였다.

반려자인 남자는 유년이지만 낙천적이고 호탕한 성격에 아량이 하해와 같이 넓은데 비하여 비정하고 웅졸하지만 우자일득(愚者一得: 어리석은 사람도 때로 잘하는 것이 있음)인 졸부와 배필이 되어 희노애락의 고통이 많았지만 유년에 백년가약 한 지 2023년 음력 9월 14일 해로운 지 61년(회혼)이 되었네. 평생을 61년(환갑)까지 못하는 인간도 많은데 61년 해로운 기간 비제(鄙第: 자기가 사는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에 출가해 와서 어른 시봉(侍奉), 봉제사(奉祭祀), 가정의 예경사에 불평 없이 우선하고 상봉하술(上

奉下率: 웃어른을 모시고 처자를 거느림)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여 효행의 근본 도리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고락과 고통을 겪는 동안 인내심으로 극복하고 견고한 의지로 생활한 데 대하여는 찬양하는 바이네. 여기에 남자도 7남매(1남 6녀)를 출산하여 무탈하게 양육하고 훈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시켜 7남매 모두 타인에 지탄받지 않고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네. 자량삼야 말하자면 국립대학교수(중국고전문학 전공), 감정평가사, 간호사, 학원 원장, 미국의 반도체 IBM사와 메모리 디바이스 마이트론사의 연구원 부장, 그 외 개인사업자도 영업을 성대히 하고 있네. 이 모두가 현명하고 명석한 배우자의 지극한 정성과 현오 양처로서 자질이 겸비됐음을 인정받기 때문이라 생각하네. 비정하고 웅졸한 졸부보다 우월한 품성으로 생활함을 신조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행하여 왔기에 가정이 편안한 것이라 생각하네. 금년 82세로 백발이 되도록 활력이 생활하고 있는 것 역시 선조님의 은덕이라 자부하네. 이것 또한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고 보배인 것이야. 나는 항상 배우자에 대하여 자상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언행과 과오, 인정이 없는 것 인정하며 애처롭고 가없는 그 애련의 감정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네.

그러나 환과고독(蠲寡孤獨)의 홀아비나 과부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팔자 좋은 것이지, 기쁨이 흥룡한 배우자에게 농담하여 구박을 받기도 하지. 그러하오니 저승에 가서는 명망하고 심성이 하해같이 넓고 호탕한 반려자와 인연이 되어 제 2의 인생으로 재탄생하여 신선의 세계에서는 천년, 만년 행복하게 호화롭게 생활하길 기원하네. 배필이 되어 해로운 지 61년 생활하는 동안 고락

도 많았지만 80여 년 건강 유지하고 살아온 것도 만복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생활한 것이 만복의 근간이 되었지요. 이렇게 한평생을 마감하고 자타간에 황천에 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나는 준비는 하고 있으나 시간이 조금 필요하네.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경세제민(經世濟民)해야 할 자식이 불혹(不惑)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知天命)에 근접하고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한탄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어른을 공경하지도 못하여 사후에 조상을 뵈을 면목이 없게 되었군. 가문의 번창은 대를 이어야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인데... 차후에 자식이 가정을 이루어 제사를 받을 손자를 낳아 대를 잇게 되면 가문의 번창은 물론 영광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야지. 외출했다 귀가하면 애교 부리는 재롱동이가 있어야 장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사주는 좋은데 팔자는 불길한지. 80여 년을 허송세월하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부덕한 소치이겠지. 그러나 사후에 7남매 자식을 부담 크게 하지 않기 위하여 명당길지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2018년 12월 20일 전주 한지로 만든 수의도 구입해 놓았으니 부담은 적을 것이네. 이것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이겠지.

자식들에게 당부하는데, 사후에 유산이나 부의금으로 가족간에 분쟁하면 천벌을 받게 되니 명심하여라. 가족간에는 우애와 화목이 우선이다. 그리고 명예와 재물은 용광로의 불덩이처럼 버리고 원수를 피하듯 하여야 후환이 없다. 나의 사후에 장례는 간소하게 행하고 조문객 접대를 후히 하여라. 회한의 서한에 사후를 말한 것은 격에 맞지 않네 그려.

2023년 9월 9일(음력 7월 25일) 반려자의 82세 생일에